

설 차례상 차림 비용 전년 比 4% ↑ 평균 20만3천원

4인 기준 대형유통업체 21만원·전통시장 18만원 전통시장 13.8% 저렴...배추·무·배 가격 부담 여전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20만3천349원으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3.8% 저렴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지만 배추, 무, 배 등 일부 품목의 가격 부담은 두 곳 모두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평균 18

만8천200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상승했으며 대형유통업체는 21만8천446원으로 5% 올랐다. 총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3.8% 저렴했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간소화한 24개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로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품목별로는 전과 나물로 활용도가 높은 애호박과 시금치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8.6%, 6.2% 하락했다. 곱감과 밤 또한 전년 대비 각각 18.5%, 9% 하락하며 차례상 물가 부담을 줄였다. 반면 배추와 무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6.1%, 98.0% 올라 여전히 상당한 가격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배의 경우 여름철 폭염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1.5% 상승했다. 실제 이날 광주 서구의 전통시장에서는 반건시 곱감 20개를 1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사과 가격의 경우 상품에 따라 3개 1만원, 2개 1만원에 판매해 지난 설과 비슷한 가격을 보였으나 배의 경우 1개에 6천원부터 8천원에 판매돼 사과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소·돼지고기는 기저효과로 인해 가격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우·한돈 자조금 단체가 오는 18일부터 20~5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를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 직전 1주 전부터 소고기(양지·설도), 나물류 등이 정부 할인지원 품목에 추가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설에 임박해 성수품을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서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농협상품권)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도 더욱 저렴하게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기관에서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조사 대상 지역, 품목, 규격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aT는 할인정보 등 알뜰 구매 정보를 소비자에게 꾸준히 제공해 소비자들의 스마트한 소비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광주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

HD현대삼호(주) 등 3개 업체... '관세행정 혜택'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15일 청사 소통마루에서 '2024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

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다. 이에 따라 이날 HD현대삼호(주)는 신규 공인을 롯데케미칼(주), 한국바스프(주) 등 2개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수출입 검사 비용 축소 및 수입신고시 담보 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박은성 기자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동수 세관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경제여건과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해 각국의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2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으며 AEO 공인업체들은 이들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박은성 기자



광주신세계백화점을 찾은 한 고객이 보해양조 매취순 선물세트를 구매하고 있다.

보해양조 설맞이 실속 선물세트 출시

75년 전통 매취순 등 12종...매실청·절임 세트도 선보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설맞이를 맞아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는 명절 선물 시장 공략에 나섰다. 1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이번 설날 선물세트는 75년 전통의 프리미엄 매취순 '매취순'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남 보해 매실농원의 최상급 매실로 만든 매실청과 매실절임 세트도 갖춰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보해양조 선물세트는 고품질 시대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전망이다. 명절 선물로 손색없는 프리미엄 이미지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젊은 세대는 물론 대량 구매를 고려하는 기업체와 단체까지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매 편의성 또한 눈에 띈다. 보해양조 선물세

트는 편의점 스마트오더 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앱으로 주문 후 가까운 편의점에서 픽업하는 서비스는 바쁜 직장인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설날을 앞두고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오는 27일까지 프리미엄 매취순 시음 행사와 함께 선물세트 구매도 가능하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매취순은 보해양조의 기술력과 전통이 집약된 제품으로 전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가치를 담은 이번 설날 선물세트도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물 선택을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설맞이 선물세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해양조 공식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성 기자

광주매일신문이 광주·전남 지역 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습도시티 명인의 솜씨와 정성으로 빚은 50년 전통 수제 약과

김복녀약과

담양 창평 습도시티에서 전통 한과인 약과를 1969년부터 외할머니, 어머니께서 만드셨던 것을 시작으로 3대째 정성과 전통을 이어받아 할머니의 손맛을 지켜가며 먹는 맛, 보는 맛이 즐거운 타래와 모양의 수제약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정성과 마음, 자부심을 가지고 맛있는 약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깊은 부드럽고 속은 바삭한 약과에 차나 커피를 곁들이면 더욱 맛있는 드실 수 있습니다.

담양 창평 명인들과 함께 하는 전통 체험

김복녀약과 매장 위치 정보

세팅/판매장: 전남 담양군 창평면 오산길 5
작업장: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원로 578-62
문의전화: 061-382-8364 (김복녀약과 고수명 대표)

주문전화 · 010-6630-4897 · 010-6472-1665

예금주 고수명 (김복녀약과)
· 광주은행 169-121-099764 · 농협 352-1278-3818-03

· 5만원 이상 상품 주문시 배송비 무료 · 5만원 이하 상품 주문시 3천원 택배비가 추가됩니다.

약과세트

1 약과 1호 100,000원
약과 1호 110~120개 내외 / 곶감 10개 포함 선택지 2가지

2 약과 3호 60,000원
약과 3호 70~80개 내외 / 곶감 5개 포함 선택지 2가지

3 약과 4호 40,000원
약과 4호 80~90개 내외 / 곶감 5개 포함 선택지 2가지

4 약과 5호 20,000원
약과 5호 100~110개 내외 / 곶감 5개 포함 선택지 2가지

약과&정과세트

1 약과정과 1호 120,000원
약과 1호 110~120개 내외 + 곶감 10개 포함 선택지 2가지

2 약과정과 2호 85,000원
약과 2호 110~120개 내외 + 곶감 5개 포함 선택지 2가지

정과세트

구절판 85,000원
포도, 사과, 자두, 배, 감, 사과, 배, 감, 사과, 배, 감

사각 30,000원
포도, 사과, 자두, 배, 감, 사과, 배, 감

쌀조청

1호(2.4kg) 38,000원
2호(1.2kg) 20,000원
택배비 포함

우리밀약과 식혜 세트

고시네 다과 60,000원
약과 30개 내외 + 식혜 2,000ml(1.5리터) 포함

약과&쌀엿 세트

1 약과쌀엿 1호 150,000원
약과 1호 110~120개 내외 + 쌀엿 1.7kg / 곶감 10개 포함

2 약과쌀엿 2호 100,000원
약과 2호 110~120개 내외 + 쌀엿 1kg / 곶감 5개 포함

3 약과쌀엿 3호 60,000원
약과 3호 110~120개 내외 + 쌀엿 700g / 곶감 5개 포함

창평 쌀엿 세트

1호(1kg) 150,000원
3호(1.2kg) 50,000원
택배비 포함

2호(2.4kg) 80,000원
4호(1kg) 35,000원
택배비 포함

우리밀 약과

1 우리밀 약과정과 1호 140,000원
약과 1호 110~120개 내외 + 곶감 10개 포함 선택지 2가지

2 우리밀 약과정과 2호 100,000원
약과 2호 110~120개 내외 + 곶감 5개 포함 선택지 2가지

3 우리밀 약과정과 3호 70,000원
약과 3호 110~120개 내외 + 곶감 5개 포함 선택지 2가지

4 우리밀 약과 1호 120,000원
약과 1호 110~120개 내외 / 곶감 10개 포함 선택지 2가지

5 우리밀 약과 2호 100,000원
약과 2호 110~120개 내외 / 곶감 5개 포함 선택지 2가지

6 우리밀 약과소 45,000원
약과 30개 / 선택지 2가지, 소포장 20개

7 우리밀 약과 [미니] 15,000원
약과 10개 / 통이장

8 우리밀 약과 1호(납작포장) 120,000원
약과 100개 내외 / 통이장, 소포장

9 우리밀 약과 2호(납작포장) 100,000원
약과 100개 내외 / 통이장, 소포장

NAVER 김복녀 약과 / 고수명

www.bnkim.com 김복녀약과 홈페이지
www.blog.naver.com/ksn1665 고수명 블로그

광주전남중기청, 중기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성료

지원정책 안내, 1:1 맞춤형 상담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5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픈관 2층에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을 포함해 광주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국세청, 국립전과연구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에게는 자금 지원, 기술개발, 창업·벤처, 수출 지원 등 중소기업부의 주요 정책과 함께 광주시의 지원사업, 고용노동청의 고용

장려금 제도, 국제청의 법인세 공제·감면 및 세정지원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설명회와 함께 진행된 1:1 맞춤형 상담에서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올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의 상황을 감안해 설명회 개최 횟수를 기존 15회에서 2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생업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1:1 상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솔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